

2018년 1월 농촌 현장의 소리



※ 문의: 미래정책연구실 조사동향팀 송성환, 김미리(061-820-2325, 2159)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의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리포터'가 보내온 농촌 현장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오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수립에 활용되길 바랍니다.<편집자 주>

□ 개 요

- 수집기간: 2018. 1. 1. ~ 1. 31.(총 25건)
- 수집대상: KRE리포터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지역간담회

□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과 대응 정책

농사일 병행하며 가사, 육아 모두 여성의 몫... 역할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 마련 요망

-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가사의 과도한 노동, 부녀회 등 지역사회에서의 과도한 역할, 건강관리나 여가활동 인프라 부족, 독농가일 경우 생기는 경제적 타격,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농사일과 가사노동만으로도 벅찬데, 각종 단체 회원이나 임원으로 소속되면 지역축제 또는 단체 활동 시 식사나 살림살이를 챙기는 것도 여자 몫이 되어버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금융권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주부라며 직업으로서 인정해주지 않는 등 개선되어야 할 사회적 인식이 많음. 또한 농촌의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영농교육 시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사회진출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주기 바람.<김○○, 경북>
- 농촌의 인력부족과 고령화로 인하여 여성농업인의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여성은 대부분 농사일 외에 가사와 육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애로사항이 많음. 소형 농기계를 많이 보급하고 비료, 퇴비 등의 중량 단위를 10kg로 낮추어 여성들이 농작업 시 다루기 쉽도록 개선해나기야 할 것임. 또한 여가 프로그램 마련, 아기 돌봄 제도의 확대 등 여성으로서 많은 역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최○○, 충남>

- 농촌에서 여성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농업에서도 단순한 보조자가 아닌 농업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가사활동, 자녀 양육 등을 동시에 해내기 위해 여러 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농작업 개선을 위한 농기계 교육 등 더욱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이 보급되고 여성 문화,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양성평등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람.<정○○, 경남>
- 과거 여성농업인은 가정주부와 농업보조자로 인식되었음. 하지만 현재는 농업부문의 중요한 노동력으로 성장하였고, 특히 원예, 축산, 낙농, 버섯 등의 생산과 친환경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가공업, 농촌관광, 6차산업 분야에서의 여성농업인 CEO도 대거 등장하고 있음. 여성농업인은 농가경제 내에서는 농업과 농외 소득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주체이며,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는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이며, 더 나아가 지역개발과 사회활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은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봄. 먼저 가부장적 제도가 부추기는 과도한 가사노동과 여성위주의 육아 환경에서 탈피하기 위한 교육, 정책과 보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또한 농촌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여성농업인을 위한 소형 농기계의 보급 및 교육 제공,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농촌관광과 6차산업 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원 등이 필요함.<도○○, 충남>
- 농협에서도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음. 농업인은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농산물 가격을 보장받지 못하고,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 등이 보장되지도 않음. 특히 여성농업인은 가사와 육아, 농사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이며, 출산 시에 일을 쉬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임. 농촌에도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를 만들어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마땅할 것임.<변○○, 강원>
- 농촌여성 바우처 카드의 한도를 올려 주었으면 좋겠음. 현재 십만 원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 또한 농촌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과격적인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육아수당을 늘려 농촌인구 증가에 기인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이○○, 강원>

여성의 영농 참여율 증가...여성에게 맞는 농기계 보급 및 여성전문 교육 필요

- 농촌에서는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농기계 의존도가 더욱 큰 실정임. 때문에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면 농사일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숙달된 작업이 매우 중요함. 반면 여성농업인은 소형 농기계 이외는 다루기가 어려워 남성 위주로만 기계작업을 하고 있음. 여성농업인이 증가하였으나 여성에게 맞는 농기계 보급이나 교육 등이 부족한 실정임.<김○○, 경북>
- 큰 농작업은 기계가 대신해주기도 하지만 섬세한 작업은 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성은 오래전부터 영농 참여율이 높았음. 먼저 농산물 및 농자재의 무게 단위를 낮춰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의 허리, 무릎 관절 등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좋겠음. 또한 농기계 운전과 정비, 수리 등 전문교육을 통해 여성인력을 자원화하여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임○○, 경기>

□ 기타 농업·농촌 현장여론

농산물 가격폭락, 경영비 상승 등 농가소득 불안정...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요구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이 시급함. 농산물 가격이 좋으면 과잉 생산되어 다시 폭락을 하고, 가격이 안 좋으면 공급이 부족해 비싸져 언론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높다며 소비자로 하여금 값싼 수입산 농산물 소비를 부추기는 실정임.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수많은 가격변동 요인으로 수급조절은 물론 가격결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농산물의 최저가격이라도 보장한다면, 수급에 따른 변동의 폭이 적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송○○, 강원>
- 시간 당 최저임금 7,530원으로 올해 인건비는 16.4% 인상된 반면, 농가소득은 줄어들고 경영비는 매년 인상되는 가운데 고령화, 인력부족 등은 장기적으로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잠시 있더라도 농산물 가격 폭등이라는 언론보도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이때부터는 생산비도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져 애써 키운 농산물을 폐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음. 농산물 가격이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해주기 바람.<김○○, 경기>

성공적인 농촌관광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 간 협업이 중요해

- 화천 산천어 축제는 1월 한 달 동안 강원도 화천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우리나라 지역축제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명성 있는 축제임. 매년 1백만 명 정도가 참가하는 규모이며, 산천어 얼음낚시, 눈썰매, 봅슬레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음. 축제 입장료의 일부는 농산물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어 근처에 마련된 농산물 판매장에서 화천의 농산물과 농가공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체험시설을 비롯해서 주차장 및 화장실, 각종 편의시설은 도시민을 비롯한 각지에서 온 방문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함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체계적인 축제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 연령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마련 등 타 지역축제의 많은 실패를 다시금 검토해 화천 산천어 축제만큼의 성공사례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함.<송○○, 강원>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에 우려의 목소리 높아

- 수입 및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PLS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혀 농가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정부에서 지정한 작목별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거나 살포횟수 등의 농약안전사용 기준이 실제 농업현장과 괴리가 큰 실정임. 제도 유예기간을 두어서 현장을 점검한 후 신중히 시행해야 마땅할 것임. 농약을 뿌린 예쁜 농산물이 가격이 좋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이○○, 강원>

창농(創農)의 실패확률 줄이려면 철저한 사전준비와 교육이 우선

- 본인은 청년농업인 대출을 받아서 농사를 시작했음. 농업을 시작하고 주위에서는 조수익이 얼마지 관심을 갖고 얘기하다보니 매출규모가 부풀려져 수익이 매우 많은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많음. 실상 순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데, 조수익만 보고 쉽사리 농사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며, 창농 전 대출상환 등 충분한 계획과 사전준비를 통해 실패확률을 줄여야 할 것임.<송○○, 강원>